

海外情報

○ 암모니아 시장 동향

암모니아를 둘러싼 움직임에 별다른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상황의 급락과 함께 바이어들의 입찰이나 교섭 움직임도 현재 상황에서는 침체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달 중순부터 입찰이나 교섭 등의 매입 움직임이 시작되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7월달 중순 이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1~2주간 전체적으로 큰 변동은 없었으며, 바이어(사용자) 측도 이제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에서 움직이기 시작해, 시장상황의 침체로 인한 대기 자세에서 탈피하여 사자 주문을 낼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움직임이 예상되는 메이커는 한국의 삼성 파인 케미컬(SFC), 대만의 중국석유화학개발공사(CPDC), 필리핀의 비료메이커인 필포스사, 태국의 화학 메이커인 태국 카프로락탐(TCL)사 등이다. 이외에도 인도의 IFFCO 등 관련업체의 매입도 예상된다.

이들 극동·동남아시아나 인도관련 메이커들은 모두 입찰이나 교섭 등으로 암모니아를 사들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1~2주 사이에 매입에 관련된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 임시로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표면화되지 못하고 깊은 곳에서 숨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메이커들의 매입은 이번 달 중순에 입찰이나 교섭 등을 통해 구체화되리라는 것이 업계 측의 전망이다.

과연 이러한 움직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암모니아의 국제가격은 이미 바닥을 쳤고 흑해선적 분으로 따져 FOB 85달러 또는 80달러 대 후반의 저 수준이었으나, 이번 달 중순 이후 입찰이나 교섭 진전에 따른 매입으로 실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지는 아직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암모니아의 국제 시장상황은 지역·발송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인도나 극동아시아를 겨냥한 이제까지의 예를 보면 C&F 140달러 내외 정도에서 결정되고 있다.

\$

현재의 시장 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 수준을 밀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2. 7. 15>

◦ 요소 시장 동향

최근, 요소의 국제시장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껏 커다란 변동은 없으나 최근 한 달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약간이긴 하나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동제 품으로 FOB는 각각 103~105달러 정도이며, 흑해선적 분으로 하면 91~93달러 수준으로 5월 하순의 FOB 각각 96~98달러, 88~90달러와 비교하여 상승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요소의 국제시장상황은 수급관계가 기본적으로 과잉공급이기 때문에 상승되었다 하더라도 고작 10달러 내외에 불과하다. 10달러 근방에서 상하면동이 이어지다가, 이를 웃도는 가격이 되면 시장상황은 상승기미를 타고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요소의 국제시장 상황은 작년 가을 초부터 연말까지 계속된 가격상승으로 중동제품의 FOB가 각각 110달러 이상까지 가격이 상승되었으며, 이어 118~123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올 1월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어 FOB는 각각 100달러가 무너져 96~98달러까지 하락하고 말았다. 흑해선적 분으로 연말의 FOB는 각각 100달러 대였으나, 이후 100달러 대를 깨고 90달러대로 급락하여 올 5월에는 88~90달러, 6월에는 9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 확실했다. 공급과잉 상태에서 요소의 국제시장상황은 예전과 다름없이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장상황을 자극시켜 경기회복을 위해 수급관계를 타이트하게 조정하는 것만이 현재의 침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2. 7. 12>

◦ DAP 시장 동향

미국 DAP 수출가격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 가운데, 예년과 비교해 최근의 FOB는 각각 40달러 가까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

중국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남미와 인도시장 활로 개척을 위한 계약까지 맺물려 단기적인 여름시장이긴 하나 비료업계는 침체되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페이스로 상승한다면 FOB는 각각 180달러 대 진입이 가속화될 것이며 예전에 보였던 높은 가격에서 보합세를 유지하는 시장상황 실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DAP 수출가격의 상승은 미국 메이커의 생산조정 진행·강화가 지속되는 한편, CARGILL사가 비료메이커인 Mulberry사를 매입했고 게다가 Farmland Hydro와의 매입에 합의하는 등 메이커의 과점화가 한층 더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것이다. 메이커의 생산·수급 및 가격 조정의 효과가 확실한 실효를 거둔 결과로 메이커는 가격대책 부담을 덜었다.

이러한 미국 DAP 수출가격은 가격상승을 향한 예전의 침체기와 비교해 FOB는 각각 20 달러, 30달러가 상승하여 최근에는 40달러까지 상승될 기세를 몰게 될 것이라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메이커의 수급·시장상황대책을 철저히 하며 동시에 중국이나 남미, 인도시장을 겨냥한 화물운송이 자연히 증가한 것도 호재로 작용하는 등 올해의 비료시장은 예전 여름시장 단경기 특유의 큰 변화가 없었던 시장상황과는 다를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시장상황에서 상품의 DAP 가격이 앞으로, FOB가 각각 180달러대로 진입하여 예전의 높은 가격 대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가지 않아 다시 급락할 것인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일본 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2. 7. 12>

◦ 방글라데시, 암모니아/요소 공장 입찰 마감 연장

방글라데시 화학산업주식회사(BCIC)에서는 암모니아/요소비료 복합공장 건립 도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시한을 2002년 7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입찰 조건에서는 원래 2002년 5월 15일까지 기술적 입찰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방글라데시 북동부 Sylhet의 Fenchugangji 지역에 있는 천연가스 비료 공장 부지에 설립될 공장의 설계 용량은 과립상 요소비료 330,000t/y이다.

\$

이 프로젝트는 초기에 설립 예정이었던 합작 투자 프로젝트인 Shahjalal 비료 공장을 대체하는 것이다. 대체된 합작 투자 프로젝트는 미국 개발사업 주식회사(American Business Corporation for Development)와 함께 실시했던 것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열 개의 입찰업체는 사전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해당 기업들은 방글라데시의 Bashundhara Group, 중국의 CNCEC, 중국 국영 중기계, 중국의 Huang Qui Chemical Engineering Corp, 말레이시아 Getco, 인도의 Lasen & Turbo, 한국의 LG 그룹, 일본의 Mitsui & Co, 이탈리아의 Snamprogetti, 일본의 Toyo Engineering Corp 등이다.

< Fertilizer Week 7. 1>

◦ 태국 APR을 고용, 인산 프로젝트 검토

아시아 태평양 자원(APR)은 국제엔지니어링 컨설턴트인 Amec와 Asuenco를 고용해서 년 200만톤의 인산 프로젝트를 검토했다. 이 프로젝트는 태국 북동부의 Udon Thani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Udon South 혹은 Somboon 프로젝트로 알려진 것이었다. 컨설턴트는 프로젝트가 비교적 작은 생산시설로 세워질 가능성을 연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의 자본을 투자한 후에 초기 단계에 MOP에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은 1998년에 엔지니어링 컨설턴트인 Kilborn Western가 실시한 연구와 비교하게 될 것이다. APR은 올해 말까지 그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한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그 동안 태국 정부에서는 Udon South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승인했다. APR의 환경 관리 프로그램은 태국 정부와 공동으로 실시될 것이며, 운영 회사인 아시아 태평양 인산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10%를 보유한다.

APR에서는 올해 8월 태국 상원에서 승인에서 태국 광산법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하면 그것이 필요한 광산 임대에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태국 광산법을 지하 광산에 대한 국제 기준과 일치하도록 할 것이다.

< Fertilizer Week 7. 1>

◦ 체코, Agrofert 사업 통합

체코 공화국의 Agrofert는 이번 주에 체코의 석유화학 거대기업인 Unipetrol 구매가 보류되었다는 신문보도를 부인했다. Agrofert는 FW에게 자신의 Unipetro 입찰은 현재 반독점 기관에서 검토하는 중이며, 거래가 성공할 경우 자신이 Unipetro와 함께 투자한 합작 투자 기업인 Lovochemie와 Aliachem을 완전히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회사에서는 Agrofert가 지난 해 12월 Unipetro에 대한 소유권을 따낸 입찰을 하면서 자신의 주주 구조를 잘못 발표했기 때문에 거래가 연기되었다는 지역 언론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Agrofert는 또 Shell, Conoco, Agip과 함께 구성한 IOC 컨소시엄이 Unipetrol 자회사인 Ceska Rafinerska 정제소(CeRa)의 지분을 올리기 위한 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을 때 거래가 장애에 부딪혔다는 배상청구를 거절했다. 대변인은 “옵션권 과정은 당사의 취득과는 별개의 문제이다”라고 했다.

또 Agrofert는 취득을 통해서 북부 보헤미아의 Litvinov에 있는 Unipetrol의 100% 자회사인 Chemopetro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Chemopetro의 암모니아 생산 능력은 visbreaker 찌꺼기를 기준으로 350,000t/y이며, 요소비료 공장의 생산 능력은 200,000t/y이다. 이 회사에서는 또 Litvinov 공장에서 에틸렌, 프로필렌, 폴리에틸린, 폴리프로필렌, 벤젠 등을 생산한다. 일부 암모니아 공장은 Litvinov에서 Lovochemie로 이전해서 CAN과 NPK를 생산하게 되었다.

런던의 영국 유황 컨설턴트이면서 질소 분석가인 Tim Cheyne는 “Litvinov 암모니아 생산시설은 낡고 비능률적이며 노동집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Agrofert의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중질 정유 찌꺼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공장이 갖는 가치로 인해 더 오래 존속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약 30,000t/y의 유황이 부분산화 처리과정으로 진행되기 전에 암모니아 공장의 중질 찌꺼기에서 제거될 것이다. Cheyne는 나아가 SKW Piesteritz와 Unipetro를 같은 공장으로 통합하면 Lovochemie 질산칼륨 생산이 Piesteriz이나 다른 외부원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에 더욱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

Unipetrol을 인수하기 위한 Agrofert의 움직임은 자신의 사업을 통합하고 비용을 절약하며 중부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폭넓은 계획의 일부이다. 올해 초 Agrofert는 스위스의 Ameropa와 독일 SKW Piesteritz의 지분 51%를 취득했다. 독일 기업의 취득함으로써 Lovochemie와 Syntesia에 암모니아와 요소비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들 기업은 Agrofert의 질소 회사이며, 체코 공화국 북부의 Pardubice에서 NPK, UAN, CAN을 생산한다.

< Fertilizer Week 7. 8>

### ◦ PIC, 새로운 그레뉼 요소비료 공장 설립

회사의 자료에서는 쿠웨이트의 석유화학산업 주식회사(PIC)는 Shuaiba인 1,750t/d의 그레뉼 요소비료 공장에서 시험 생산을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공장은 이탈리아 Tecnimont가 1,000t/d의 prilled urea 생산시설을 전환, 확장한 것이며, 8월 전반에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생산시설을 전환함으로써 PIC의 그레뉼 요소비료 생산능력을 577,5000t/y으로 늘렸으며, 아랍 페르시아만 지역에 있는 공장의 생산능력은 297만 t/y에서 약 355만 t/y으로 늘렸다.

자료에서는 공장은 상업생산을 시작하면 이산화탄소의 부족으로 인해 생산능력의 80%만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PIC는 현장에 있는 기존의 공장 두 곳에서 prilled urea를 제조하는 데 사용된 이산화탄소 생산시설의 일부를 그레뉼 생산시설로 전환해서 완전히 가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에서는 또 이곳에서 회사의 prilled 생산을 생산능력의 85%까지 줄일 것으로 평가했다. PIC의 prill urea 공장 두 곳의 생산능력은 각각 700t/d 정도의 보통이며, 현재 전력을 다하여 운영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PIC의 새로운 공장은 80%의 생산능력에서도 시장에 40,000t/month의 그레뉼 요소비료를 추가공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AG 그레뉼 가격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PIC는 또 자신의 prilled urea 공장을 그레뉼 생산시설로 전환해서 생산능력을 15% 확대할 계획이다.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이 공장은 2003년 4월에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Tecnimont는 공장의 계약을 재정받았다.

## < Fertilizer Week 7. 22>

#### ◦ 인도, CFL 암모니아 생산시설 체불

회사의 자료에서는 인도의 Coromandel Fertilisers(CFL)은 Visakpatnam에 있는 120,000t/y 암모니아 생산시설을 처분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생산업체는 2002년 3월 31일에 끝나는 회계 연도의 순이익에서 Rs254백만(&520만)를 처분했으며, 그것은 공장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CFL는 2년 전에 저장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생산 시설을 폐쇄했으며, 지금은 비축물량 및 예비물량을 위한 생산시설을 매각할 계획이다.

CFL은 Mitsui와 3년간 약 100,000t/y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올해 12월에 종료된다. CFL은 1999년 4월에 학구의 암모니아 하역 및 수송 시설에 위탁했다.

암모니아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5km 떨어진 회사의 생산공장이 있는 곳으로 수송된다. 그 외 별개로 CFL은 새로운 Rs190백만(\$390만) 양하기를 설치하고 Rs25백만의 비용을 들여 Visakpatnam 현지에 용융 황산 저장을 위한 5,000t 용량의 저장 탱크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회사는 1997년 7월에 용융 황산 처리 시설에 위탁했으며, 그것은 인도에서 그와 같은 종류로는 첫 번째이다.

< Fertilizer Week 7, 22>

♣ 사랑과 사랑이 가까워지는 데는 칠곡 쪽의 공감이 라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 는 것 같다. < 록이제 힙처 - 쌤의 청가수례 축에서 >

### < 독이제 팀전 - 셀의 혁가드례 축에 철 >